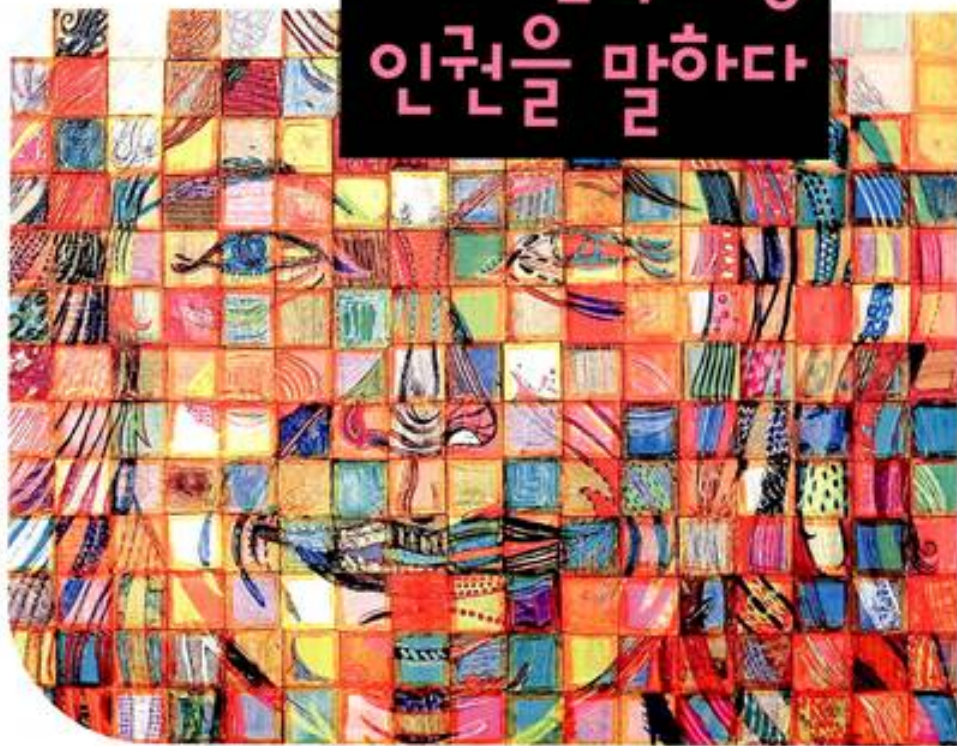


2008



세계여성의 날
100년
한국여성
인권을 말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CONTENTS

세계여성의 날 100년

세계여성의 날 유래 _ 4

한국의 여성의 날 행사 유래 _ 6

해외사례 _ 8

세계여성의 날 100년 한국여성인권

한국여성운동 20년 그리고 변화 _ 10

한국의 여성인권 현실과 미래 _ 12

한국여성대회 어제와 오늘 _ 17

인권상식 _ 25

한국여성단체연합 소개 _ 28

세계여성의 날

100년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은 매년 3월 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 날의 역사는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20세기 초반에 시작된다.



세계 여성의 날 유래

세계 여성의 날의 역사는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20세기 초반에 시작한다.

미국 맨하탄에서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1908

1909

미국의 한 정당에서는 2월 마지막 일요일에 여성선거권 획득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뉴욕의 의류산업 여성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파업과 투쟁은 일하는 여성의 존재와 비중을 미국 사회에 두각이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의 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

International Women's day

8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여성회의'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여성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1910

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 등에서 국제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1911

매년 3월 8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관행이 국제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99

한국의 여성의 날 행사 유래

1920년대 중반인 일제시대부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일제 탄압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1948

이후 사회적 격변과정에서 맥이 끊어진다.

1946, 1947

한국에서는 해방 후 '조선부녀총동맹'이 1946년과 1947년 3월 1일부터 8일까지 부녀 해방투쟁 기념주년을 설정, 기념행사를 열기도 했다.

한국여성대회

1987~

1987년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창립된 후, 매년 3월 8일을 전후하여 2007년까지 총23회의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1985

3월 8일에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여성평우회, 여성의전화 등 14개 여성단체는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을 주제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Korean Women's Conference



여성노동자대회 | 1988년부터 한국여성노동자회는 3.8 여성대회 기념행사를 시작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00년부터 독자적으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96년부터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대회 |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충북, 전북,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역별 연대를 통해 매년 3월 8일을 전후하여 다양한 주제와 형식, 내용으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2008.3.8

오늘날, 자구촌 여성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열망을 표출하고, 연대를 공고히 하는 행동과 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8 세계여성의 날'의 역사가 한 세기를 이루게 되었으며, 그동안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 온 노동·여성단체는 세계여성의 날 100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의 167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3.8 여성축제를 기획·추진했다.

해외 사례

전 세계적으로 '세계여성の日'은 여성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높은 평등을 성취하도록 격려하는 날로 기념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세계여성의 날'에 남성들이 어머니와 아내, 여자 친구와 동료들에게 꽃과 선물을 주며 여성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여성을 위한 영화제,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베트남과 러시아, 중국 등 15개국에서는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선정하고 여성노동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며, 캐나다는 1995년부터 3월 8일 전후를 '세계 여성의 주간'으로 선포하여 기념하고 있다. 또한 이 날은 각국의 여성관련 이슈를 정부에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2008년 필리핀은 '여성 과 소녀에 대한 폭력 방지'를, 태국은 '알려지는 여성을 위한 행진', 인도네시아는 '여성의 권리 말하라'라는 주제로 거리행진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유엔 차원에서도 매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 평등을 위한 유엔의 과제를 선포하고 있다. 이제 세계여성의 날은 종교와 민족,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날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세계여성의 날 100년, 한국여성인권

한국여성운동 20년, 그리고 변화

한국의 여성인권, 현실과 미래

한국여성대회, 어제와 오늘





한국여성운동 20년, 그리고 변화

1980년대

- 1987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2. 4)
- 1988 정무장관(제2)실 신설
- 1989 남녀고용평등법 1차 개정(4. 1)
- 1989 모자복지법 제정(4. 1)

1990년대

- 1990 가족법 3차 개정, 가사소송법 제정(1. 13)
- 1991 영유아보육법 제정(1. 14)
- 1993 일제하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제정(6. 11)
- 19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1. 5)
- 1995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1. 5)
 - 남녀고용평등법 2차 개정(8. 4)
 - 여성채용목표제 도입(12. 12)
 - 국가공무원법의 육아휴직제와 가족간호휴직제 신설(12. 12)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2. 30)
- 19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8. 22)
 - 국적법, 남계혈통주의와 남성중심주의 해소(12. 13)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12. 31)
- 1999 동성동본불혼제도 헌법 불합치 판결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2. 5)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2. 8)
 - 남녀고용평등법 3차 개정(2. 8)
 - 재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판결(12. 23)

2000년대

20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2.3)

— 정당법, 여성공천할당제 신설 (2.16)

2001 정부조직법 개정, 여성부 신설 (1.29)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차 개정(1.29)

— ILO의 가족책임있는남녀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에 관한 협약 비준 (3.29)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5.24)

— 모성보호관련법 개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8.14)

2002 국가공무원법, 육아휴직제도 개정(1.29)

— 정당법, 여성공천할당제 강화(3.7)

— 여성발전기본법 1차 개정(12.11)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제정(12.19)

— 모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 변경(12.19)

— 양성채용목표제 도입(12.26)

200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차 개정(5.29)

— 여고수 임용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7.25)

2004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1.19)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3.22)

— 정부조직법 개정, 보육업무 여성부로 이관(3.2)

2005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 불합치 판결(2.3)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3.31)

— 모성보호관련법 개정(5.31)

2007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5.17)

— 모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 변경(10.17)



한국의 여성인권

현실과 미래

한국의 여성인권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사회구조적인 차별로 발생되는 여성빈곤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여성인권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인권 교육 의무화 및 통합적 인권교육 실시, 차별금지법 제정

현 황

- 여성인권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 수준, 피해자의 권리보호 미흡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여성인권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나, 실효성 취약
- 인권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학교예방교육 미흡, 형식적인 인권교육 진행 중
- 차별 관련 법률이 선연적이며,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처벌 구제는 미흡

과 제

- 차세대를 교육하는 교사,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 법을 운용하는 법조인 등 핵심 전문가 그룹 대상에 대한 여성인권 교육 의무화 필요
- 여성인권 및 여성폭력 예방, 성평등 의식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인권교육 실시
-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현 황

- 가정폭력은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존재
-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피해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피해자 인권보호의식 미흡
-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리보다 '가해자 상담'이라는 서비스적 접근 제도로 인해 총 가정폭력사범 검거 전 체인원 중 약 14.9%만이 기소처라(2003년 기준)

과 제

-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는 사회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적절한 처벌 필요
- 피해자의 안전강화를 위한 경찰, 관계 부처 등 공공기관의 노력 필요

성폭력 관련 법 전면개정, 실효성 있는 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대책 수립

현 황

-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강간죄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행위도 제한적임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동종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며, 실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정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음

과 제

- 형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권리보장을 명시
- 아내강간죄와 비동의간음죄 도입, 친고제 폐지, 공소시효정지 및 연장, 피해자의 권리 보장 확대 필요
- 교정교육,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각종 가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필요예산 배정 등 기본인프라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전문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 필요

성매매 수요차단,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수립

현 황

- 정부는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성매매범죄는 줄어들지 않음
- 해외로 인신매매된 성매매피해 여성과 해외에서 성매수를 하고서도 처벌받지 않는 성매수자들, 한국으로 인신매매되어 입국하는 여성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 시급
- 성매매경험을 가진 피해여성들은 정책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재 인신매매되거나 성매매로 다시 유입되기도 함

과 제

- 성매매 관련 범죄행위 강력대응, 성매매업소 폐쇄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및 자유업종에 대한 단속강화, 업소폐쇄, 행정처분 강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등 엄격한 법적용 필요
- 인신매매, 성매매 및 국제 성매매방지를 위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 다양한 주거지원, 좋은 일자리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확보

■ 빈곤의 여성화 해소

여성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현 황

- 전체 가구주 중 21.9%, 여성취업자의 24%가 여성가구주이며,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남성가구주 빈곤율보다 3배 높은 21% 수준

과 제

- 한부모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취업연계
- 여성한부모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 보장
- 일하고 싶은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주거와 의료지원 확대

높은 여성 비정규직 비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해소 필요

현 황

- 여성경제활동참여자(15~64세)은 54.7%(2006년)로 OECD 평균보다 6% 낮은 수준
- 여성노동자의 67.6%가 비정규직(2006년 8월 통계청, 정규직 남성의 43% 수준의 임금 수령)
- 여성노동자의 26.6%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
- 비정규직관련법이 시행중이지만, 차별규제를 위한 실효성 낮음

과 제

- 성별·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판단기준 마련(성인지적 직무평가 모형 및 지침 도입), 차별시정제도 도입 필요
- 특수고용노동자와 비공식영역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함

■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장애인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 노동권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현 황

- 여성장애인은 성(Gender), 장애정도·유형,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이 남성장애인과 다름
-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박탈은 직업선택 제한,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 결혼조건상의 차별과 불이익을 가져오며,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천적인 차별 원인이 됨

과 제

- 사회적으로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로 배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여성장애인 기초 학습 교육, 검정고시 반 운영,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 등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질적인 교육제도) 마련 및 의무교육 실시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현행 2%에서 5%까지 확대하고 이중 50%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권익 옹호

현 황

- 약 12만 명에 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임금차별, 모성보호 부재, 열악한 주거환경, 성폭력, 건강권 부재 등의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
-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인권침해를 받아도 강제추방 등의 체류불안 문제 때문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음
- 약 12만명의 제3세계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은 피부색과 민족이 다르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계급차별·성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5만여명의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교육기회 등에서 차별 당하고 있음

과 제

-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 및 국내법 적용, 피해 회복까지 생계 및 의료보장
- 배우자의 착취로 인한 이혼 시 체류권 및 취업기회 보장,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입소한 무국적 이주 여성의 기초생활급여 지급
- 국제결혼 중개업에 의한 인신매매적인 결혼 예방책 필요
- 미등록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체류권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고등교육 기회 허용

Korean Women's
Conference
한국여성대회,
어제와 오늘



한국여성대회, 어제와 오늘



1985~1989

1985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

1986 "민주회와 여성 생존권"

1987 "민족현실과 여성운동"

여성운동상 | 부천시 성고문 사건을 폭로한 권인숙

1988 "여성이에 민족자주회의 대열로"

여성운동상 | 회사측의 불법 위장폐업을 철회시킨
맥스테크 노동조합

1989 "평등한 삶의 새 날을 향하여"

여성운동상 |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폭로한 피코노동조합,
경찰관에 의한 강간을 폭로한 김정순

1990 "평등한 노동, 건강한 모성"



1991~1999

1991 "평화, 군축, 통일을 여성의 힘으로"

"지방자치제를 맞는 여성들의 각오"

여성운동상 | 남북분단의 경계선을 넘은 통일의 불꽃, 임수경

1992 "여성들의 한표로 세상을 바꾸자"

여성운동상 | 바람직한 여성위원의 전형을 보여준 '박영숙' 국회의원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최초로 증언한 '김학순'

1993 "전진하는 여성, 열리는 사회"

여성운동상 | 여성조합원의 참여로 여행원체, 신인사제도를 폐지한

중소기업은행노동조합 여성정책실

1994 "지역살림의 참일꾼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여성의석 20% 확보!"

여성운동상 | 지역주민의 의사를 의회에 모범적으로 반영한

'홍미영' 인천시 의회 의원

1995 "열린정치 생활정치,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1996 "여성이 열어갈 21세기 복지 안전의 시대로"

여성운동상 |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비인도적인 범죄이며 일본정부가 국제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공헌한
"도츠카 예츠로우 변호사"

다 | 서울대 성희롱·사건 소송으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이슈화한 **우조고**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성발전기금 조성하고 여성정책을 강화한 전 **서울시장 조순** | 영화 '개같은 날의 오후'로 가정폭력문제를 사회화한 **이만용 감독** | 회사의 비정규직 확산을 규제하는 노사합의를 이끈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동조합, LG화학 노동조합** |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한 피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강원구 부장판사**

1997 "가자, 21세기, 여성의 시대로"

여성운동상 | 대안적인 여성언론을 창간하고 여성운동 대중화에 기여한
이계경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다 | 식발로 여성의 투쟁의지를 보인 **병원노련 위원장 박문진**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헌장을 누빈 **여성감독 변영주** | 여성장애인 문제를 사회화시킨 '빛장을 여는 사람들' | 상주형범 뒤쫓다 살해된 피로온 시인 **故최성규** | 남성 중심문화에서 당당하게 여성인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 추미애**

1998 "가자, 여성이여! 고용안정·인권이 보장되는 평등의 시대로!"

여성운동상 | 성화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서울대 우조고 성희롱사건 공동변호인인 **박원순, 이종걸, 최은순 변호사**

다 | 동성동공금회법의 위헌판결 이끌어낸 **박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 여성주의 시각의 대중문화운동을 확산한 **이계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 양성주의 인권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비민주적 법제도 개선운동을 전개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가정폭력방지법과 시행령 법안을 마련한 **이찬진 변호사** | 서울대 우조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최종영 대법관**

1999 "평등, 평화 이루는 새로운 천년으로!"

여성운동상 | 빈민여성사회교육, 국내 최초 아동무로급식소를 운영한
강명순 부스러그신교회 협동총무

다 | 월은이온 소송제기로 여성노년의 인권문제를 부각한 **김청자, 이사형 할머니** | 최초로 농촌여성에게 '출산보조금'을 지급한 강원도 인제군 **이승호 군수** | 정당법에 여성할당제 30%를 정책화한 **김희선 여성위원장** | 여성단체 부서의 구조조정을 막아낸 **보훈병원 노동조합** | 가정폭력방지법 정착화에 기여한 **SES '그것이 알고 싶다: 목격담만-범'은** **익을 수 있는가?'**



2000~2008

2000 "새로운 천년, 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여성운동상 | 정치발전인 구조조정의 부당성에 맞서 싸우는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재노조식당) 144명

다
당
을

여성장애인 강간사건에 적극 대응한 강릉 옥계면 남양리 마을주민들 | 법적 투쟁을 통해 미혼모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진현숙씨 | 경찰공무원으로서 '여성이 하면 이렇게 달라진다'를 보여준 김강자 중앙경찰서장 | 420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사진상규명 법제정을 이끌어 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어머님들 | 성차별적 여성우선해고에 온 몸으로 저항한 농협중앙회 노동자 김미숙, 김향아씨

2001 "차별, 편견 깨뜨리고 남녀평등, 공동참여 사회로 나아가자"

여성운동상 | 정신대 할머니의 인권회복운동을 평생 소망으로 실천하는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다
당
을

개인적 보상이 아닌 사회적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군산 매춘업소 화재참사 유가족 | 아줌마의 독집과정을 그리는 MBC 드라마 '아줌마' 제작팀 | 호주제폐지의 신명,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간의모임 |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천트리클럽) 분회 | 여성노래 만들어 평등하고 건강한 문화 일구는 노래전사, 가수 안혜경

2002 "성매매 방지법 제정·호주제 폐지·보육의 공공성 확보"

여성운동상 |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과 성매매에 대한 사회의식 변화를 촉구하는
 '매매촌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다
임
동

여성장애인 성폭력 재판에서 장애특성이 고려된 판결을 내린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 | 호주제 위헌심판재정결정을 내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안성희 판사, 북부지원 양승태 판사 | 58세 정년차별 철폐하고 재고용 생략한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경북대 미화원 분회' | 남성중심적 노동조합 문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대의원 50% 여성화한 통과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매매촌여인숙 소유 김영세 충북교육감 퇴진을 위한 시민행동 집행위 원장 진옥경씨 ·

2003 "성매매방지법 제정하러! 여성의 힘으로 반전 평화불! 양성평등 예산 확대!"

여성운동상 | 여성주의 문화활동의 지평을 넓힌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혜경 대표'
 여성예술집단 '오름' 이혜란 전 대표 공동수장

다
임
동

평범한 여성직장인에서 '직장내 성희롱' 알게 된후 끝까지 싸워 이긴 여성노동자 김태환씨 | 롯데 성희롱 사건 승소를 얻어낸 여성노동자들 | 일리언츠 사내부부 우선해고 승소를 얻어낸 박보선, 명영선, 이선이, 김옥화씨 | 피미니스트 자살 IF | 선불금 갈취 혐의로 시가죄로 고소당한 탈성매매여성 2명에게 무형의 처분을 내린 대구지검 상주지청 구자현 검사





2004 "남녀가 함께 행복한 상생의 공동체로!"

여성운동상 | 부계혈통주의인 호주제의 생활학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재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여성운동상

여성의 이념으로 반전평화를 몸으로 실천한 한국이라크반전평화위의 여성활동가들 |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를 강단에 세운 서울대학교 법대 인경환 학장 | 학교비정규직 문제 사회에 알려내고 상용직화 방안을 이끌어낸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일동 | 성매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고, 국가상대 배상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끈 배금자 변호사

2005 "행복한 나눔! 평등한 가족! 힘내라 여성!"

여성운동상 | 여성의 생활현장과 이해에 기초한 여성노동조합을 건설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운동상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참여자 24명 |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이끌어낸 민변 위헌소송변호인단 |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 과장 | KBS '주부, 세상을 말하지' 제작팀

2006 "양극화 넘어 더불어 함께

- 여성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한부모지원제도 확대!"

여성운동상 | 불우리 지역 운동의 모범을 보여준

백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여성운동상

호주제 폐지운동의 전사 - 평등가족 홍보대사 김이화, 권혜효 | 40세 조기직급정년의 간접차별 문제를 이끌어낸 정영일씨 | 광안성매대사건, 광주송정동 성매매사건을 성평등 관청으로 판결한 광주지방법원 신재성 전 지원장

2007 '양극화 넘어, 대안사회로!

- 빈곤의 여성화 해소, 평등·평화문화 확산, 물뿌리 지역공동체 확산

여성운동상 |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비정규직화에 맞서는

KTX열차승무지부

다
답
을

제주도지사 상수형 사건을 고발한 고창희씨 | 여성순천차별에 맞서 승리를 얻어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판매본부 광주전남지부 여성분회 |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평화미군기지 대추리 도토리 할머니들 | 성폭력을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의 관점에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 황현주 부장판사 | 성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심층적으로 제기한 MBC '여성의 힘 희망한국' 제작진

2008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 여성축제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 사람·돌봄·상생

여성운동상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800번의 함성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시위

다
답
을

부당하고 성차별적인 강제학역 처벌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파우진 중형 | 노조결성을 이유로 부당하고 당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 | 여성 청각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안화학교(광주 청각장애인특수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정신적·경제적·언어적·성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폭력 외에 언어폭력, 상해, 방임, 아동학사, 감금, 기물파손, 모욕 등이 해당된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형제·지매,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가정폭력 유형

- **신체적 폭력**: 물건을 집어던진다, 세게 밀쳤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물건으로 때리거나 위협하는 등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행위.
- **언어적 폭력**: '넌 심원짜리아',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등 경멸하는 말투, 말로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정서적 폭력**: 불평하거나 화를 냈다,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욕설 등 심한 말을 하는 등의 지속적인 학대 행위.
- **경제적 폭력**: 생활비나 자녀의 학비, 용돈 등을 주지 않거나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집안의 경제에 해를 입히는 행위.
- **성적 폭력**: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 폭력 후 강제적인 성행위로 성적행위에 응하도록 강요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폭행이나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행위.

가정폭력 대처방안

- 첫 폭력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
-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한다(가해자 연행, 100m 접근금지 명령 요청 등)
-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한다.
- 의료지원을 받는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거해지는 모든 폭력을 의미한다. 강간뿐만 아니라 불쾌한 신체 접촉, 음란한 언어나 시선, 통신매체를 이용한 불쾌한 언어 등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적결정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

성폭력 유형 및 대상

- **성폭력 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준강간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강간하는 행위)
- **성폭력 대상**: 어린이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데이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등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 각 지역 성폭력전담 병원에서 증거채취 및 진료를 받는다.
- 112에 신고한다.
-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한다.



상담전화 안내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상담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24시간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행도문의 경우 지역번호 +1366)
 - 폭력신고: 국번없이 112
 - 검찰청 범죄 종합신고: 국번없이 1301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국번없이 1331
 - 아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1577-1366
 - 성매매피해 신고 긴급 전화: 국번없이 117(경찰청 운영)

불심검문이란?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로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행하였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란?

성을 파는 행위, 음란행위, 음란한 내용의 사진, 영상의 촬영대상을 성을 목적으로 성대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배, 관리하는 선불금 제공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을 제지한 경우와 채무이행확보 명목으로 여권 등을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성매매 피해자의 권리

- 성매매 피해자로서의 권리 보장 : 위계,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마약에 중독당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심신 미약자 또는 중대한 장애인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각각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 불법임원으로 인한 채권채무무효조항 강화 : 성매매 여성의 채권채무(빛)의 경우 계약의 내용, 형식, 명목을 불문하고 무효이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



불법적인 불심검문은

- 불심검문시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신분증 제시, 소속과 이름 알림)을 밝히지 않는 행위
-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은 행위
- 강제 행위, 즉 불심검문시에 경찰관이 시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핸드백이나 가방을 열거나 소지품이나 주머니를 뒤지는 행위

불법 불심검문 대처법

- 경찰관의 신분과 불심검문 목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목적에 맞지 않는 검문을 요구할 때는 거부한다.
-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한다.

출처 | 성폭력없는 세상 만드는 게 어렵나?
2006 여성학박사연구회
서울여성안전화 홈페이지 등

한국여성단체연합 소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여성운동단체간의 연대와 소통을 도모하고
성평등, 민주·복지, 평화·통일의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해 1987년 2월 18
일 창립한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운동단체로 전국 6개 지부, 28개 회원단체와 함
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연합은 그동안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보육 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확대 요구
밤길 다니기 무서웠던 여성들을 위한 성폭력특별법 제정
구타 당하는 아내와 아동,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유급 육아휴직제도 확대 및 모성비용의 사회분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 도입
일과 가족, 사회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해 온 여성의 삶을 바꾸고,
평등과 평화를 일구기 위한 현장에서 여성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여성연합은 지금

사회양극화와 빈곤 해소를 위한 활동
고용평등 및 일·생활 양립을 위한 기반구축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
풀뿌리 여성운동 확산
여성의 시각에서 평화통일운동 전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개최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대안사회 담론 및 모델 개발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국내외 연대
여성미래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연합은 앞으로 Vision

평등 · 나눔 · 소통

모든 분야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인정되는 사회
풀뿌리 지역에서 돌봄과 나눔이 살아나는 사회
평화체제 구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사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
보육, 의료,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사회적 안정망이 보장되는 사회
평등과 평화가 일상 의식과 생활에 스며드는 사회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소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가 활동하는 전국적인 연합단체입니다.

단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kwau@women21.or.kr
경기여성단체연합	031-233-8673	kgwomen@kg21.net
경남여성단체연합	055-282-0365	gnw365@hanmail.net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062-361-6078	kcwau@hanmail.net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053-421-6758	jwyunt228@hanmail.net
부산여성단체연합	051-553-6645	bwau1999@hanmail.net
전북여성단체연합	063-287-3459	jbwomen@hanmail.net
경남여성회(2개지부)	055-282-9603	knwm@chollan.net
마산지부, 창원지부(2개 지부)		
기독교민회	02-312-7957	kwm8674@hanmail.net
대구여성회	053-421-6758	dwae88@hanmail.net
대전여민회	042-257-3534	women3534@hanmail.net
부산성목여성상담소	051-558-8833	wopower1@korea.com
부산여성사회교육원	051-802-6083	feminedu@chol.com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2-312-8297	2004-609@hanmail.net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02-747-2442	kcwc21@jinbo.net
새물터	031-663-4655	swoom2@chollan.net
수원여성회	031-241-7530	swa89@paran.com
안양여성회	031-458-3050	aws85@hanmail.net
여성사회교육원	02-312-0872	wsr@wsr.or.kr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북여성사회교육원 (전국 2개지부)		
울산여성회	052-266-7159	ulsan-women@hanmail.net
중구지부, 북구지부, 동구지부, 울주군지부, 남구지부(5개지부)		
제주여민회	064-756-7261	jejuwomen@hanmail.net
제주여성인권연대	064-723-5004	jejupeacemaker@hanmail.net
충북여성민우회	043-252-8124	cbwomen@hanmail.net



<http://www.women21.or.kr>

단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평화불만드는여성회	02-929-4847	wmp@peacewomen.or.kr
포항여성회	054-284-0404	phwomen@hanmail.net
한국성목력상담소	02-338-2890	ksvro@korea.com
한국여성노동자회	0505-533-3838	kwwnet@kwwnet.org
	대구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전국 10개 지부)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minwoo@womenlink.or.kr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서울남부여성민우회(전국 10개 지부)	
한국여성연구소	02-877-6206	kws89@hanmail.net
한국여성의전화연합	02-2269-2962	hotline@hotline.or.kr
	서울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전국 25개 지부, 서울강서양천지회(1개 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3675-9935	kdawu@hanmail.net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전국 10개 지부, 시각여성회, 청각장애여성회(2개 회원단체))	
한국어신학자협의회	02-365-4276	kawm@chol.com
	대전어신학자협의회(전국 1개 지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wmigrant@naver.com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전국 3개 지부)	
함께하는주부모임	053-425-7701	hamjumo@hanmail.net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02-393-8900	hakbumo@choll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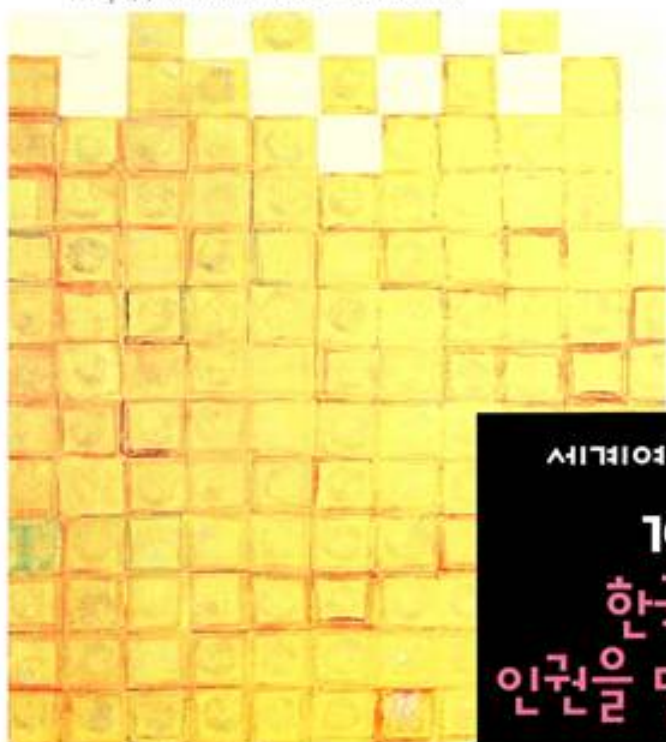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정로 2가 190-10번지 여성미술화랑 1층

전화 02-313-1632 팩스 02-313-1649 이메일 kwau@women21.or.kr

<http://www.women21.or.kr>



세계여성의 날
100년
한국여성
인권을 말한다